

## 멜추크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연구\*

홍재성·박동호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 1. 머리말

의미·텍스트 이론 *théorie sens-texte/meaning-text theory*은 1960년대 I. Mel'čuk과 그의 동료들<sup>1)</sup>에 의해 제창된 후 러시아어, 불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의 어휘기술에 적용되면서 발전해 왔다. 이 이론이 지향하는 바는 “의미를 텍스트로, 텍스트를 의미로 전환하는 대응규칙의 체계”로서 언어를 모형화하는 것이다<sup>2)</sup>. 의미·텍스트 이론에 의해서 구축된 자연언어의 총체적 표상 모형이 바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modèle sens-texte*이다.

이 모형은 종속문법을 채택하여 성분구조문법 중심의 언어학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문장의 위계적 구조를 명시하는 하나의 방법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어떠한 순서로 결합하여 성분을 이루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장의 성분구조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통사론의 중심 과제

---

\* 본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공동연구지원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본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원고정리와 교열작업에는 불어불문학과 고길수 조교가 참여하였다.

- 1) I. Mel'čuk(1973), (1974). I. Mel'čuk & A. K. Zolkovskij(1971). Y. D. Apresyan *et al.*(1969).
- 2) A. Nakhimovsky(1983, 1990)는 변형문법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과 달리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설명적 적정성이 아닌 기술적 적정성의 추구에 만족하여 개별 언어를 총체적·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언어학 연구의 핵심적 작업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는 문장의 성분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며 이는 Bloomfield, Harris, Chomsky로 이어지는 20세기 미국 언어학계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문장의 성분구조, 즉 한 통사 범주가 다른 어떤 통사 범주들로 이루어지는가를 명시하는 규칙이 구구조규칙이며 문장을 생성하는 장치로 구구조규칙을 사용하는 문법이 구구조문법이며 이를 성분구조 문법이라고도 한다. 한 언어의 모든 문법적인 문장들을 생성해 내는 장치를 가정하는 생성문법은 구구조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분 또는 성분구조라는 개념에 의해 문장의 위계적 구조가 전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에서 두 요소가 결합하여 성분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에 종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장의 위계적 구조를 명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문장 내의 한 단어가 어떤 단어에 종속하는지, 즉 종속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해서 성립된 문법 모형을 종속문법(또는 의존문법)이라 한다. 종속문법에서의 문장의 구조는 지배적 어휘와 이에 종속되는 어휘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문장의 구조는 지배적 어휘의 어휘·의미적 특성에 따른 종속 논항<sup>3)</sup>의 수와 그 결합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통사 규칙에 따른 단어들의 결합체인 구에 주목하는 성분구조 문법과는 달리 종속 문법에서는 어휘·의미적으로 논항을 갖는 어휘에 주목한다. 이는 그 동안 주류 언어학에서 부차적 중요성만을 부여받던 어휘부에 대한 집중적 연구의 토대가 되었고 따라서 종속문법의 방법론을 채택한 의미·텍스트 이론은 광범위하고 정밀한 어휘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sup>4)</sup>.

3) 본고에서 논항은 actant와 argument을 모두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의 두 개념은 구분된다. 우선 actant은 모든 지배적 단위에 필연적으로 내포되는 종속요소를 가리킨다. 이것은 다시 의미 층위의 종속요소와 통사 층위의 종속요소로 구분된다. 반면 argument은 전통적으로 술어prédicat로 분류되는 단위들의 종속요소들만을 지칭한다.

4) 종속문법은 Tesnière(1969)에서 시작되어 독일 등 유럽 언어학계(Heringer, 1970; Hudson, 1993)에서 발전되었다. 격지배 등 전통문법의 여러 개념에서도 의존문법의 싹을 찾을 수 있다. 의존문법은 러시아어에서와 같이 단어가 풍부한 형태 변화를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언어 형식주의가 아닌 기능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능문법 입장에서는 언어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로 정의하며, 따라서 문장을 생성, 이해, 판단하는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형식문법과는 달리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한다. 언어 연구를 언어수행의 관점에서 행하는 기능문법에서는 화용론과의 관련하에 의미론과 통사론이 연구되며 형식문법과는 달리 통사보다는 의미와 어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sup>5)</sup>.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는 문장의 의미는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 구조는 여러 하위부분으로 분할된다. 이 하위부분들 가운데 지배적 의미부분은 지배 어휘로 실현되며 개별 의미부분들에는 개별 어휘가 대응하며 이 지배 어휘와 개별 어휘를 바탕으로 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도출된다. 따라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는 지금까지 분리·연구되어 왔던 의미와 통사는 어휘를 매개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어휘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준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 구현하려는 대응 관계는 의미에서 텍스트로의, 그리고 텍스트에서 의미로의 양방향 관계(relation bidirectionnelle)이다. 그러나 의미·텍스트 이론은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를 통한 텍스트 생성을 목표로 해 왔으며 Mel'čuk 또한 기존 언어학의 해석적 입장과는 달리 화자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즉, 작금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의미에서 텍스트로의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개의 텍스트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과 어휘들의 제약적 결합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는 도구가 환언체계(système de paraphrases/paraphrasing system)와 어휘함수(fonction lexicale/lexical function)이다. 특히 어휘함수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내에서 개별 어휘의 계열관계와 제약적

---

보이고 문장 내에 자유롭게 위치하는 언어를 분석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반면, 성분구조 문법은 단어의 형태소 변화가 적고 품사에 따른 문장 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영어와 같은 언어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5) S. Dik(1978), (1980), (1989).

6) I. Mel'čuk(1988b).

통합관계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된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어휘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 어휘가 다른 어휘와 맺는 계열적·통합적 관계를 망라하는 정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는데 의미·텍스트 이론을 어휘부에 적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형식의 사전이 결합설명 사전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 explicative and combinatory dictionary* 이며<sup>7)</sup> 그 예로는 러시아어 결합설명 사전<sup>8)</sup>과 현대프랑스어 결합설명 사전<sup>9)</sup>이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어 어휘요소에 대한 한국어 사용자들의 어휘지식을 충실하게 표상할 수 있는 한국어 사전 편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비적 연구로서의 한국어 어휘기술 및 어휘자료체 *base de données lexicales* 구축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언어학적으로 의의있고 실용성도 높은 Mel'čuk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구축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이론과 방법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인간 언어의 핵심적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표상모형이라는 점에서 생성문법을 위시한 현대의 다른 주요 언어모형과 비견될 수 있으나, 근래까지도 널리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비주류 언어학의 한 분파로 간주되어 왔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복수 표상층위 *niveau de représentation*를 가정하나 의미론에 기초하며 종속문법 모형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성분구조 문법을 흡수한 통사론 중심의 생성문법의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그리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언어학계 내외에서 어휘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전형적인 어휘부 중심의 언어표상 모형인 M. Gross의 어휘문법 *lexique-grammaire*<sup>10)</sup>과 더불어, 통사부 중심 이론에 대한 대안, 자연 언어 처리 *traitement automatique des langues naturelles* 영역에의 기여, 또는 언어 교육이나 일반 언어사전 편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으로 폭넓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 대한 개괄적인

7) 결합설명 사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박진호(2000)을 참고할 것.

8) I. Mel'čuk et A. Zholkovskij(1984).

9) I. Mel'čuk et al.(1984), (1988), (1992).

10) M. Gross(1975).

설명에 해당한다. 2.1에서는 이 모형의 세 가지 기본 전제인 다대다 대응관계 *correspondance multi-multivoque*, 기능적 모형 *modèle fonctionnel*, 다층적 구조의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2.2는 이 모형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2.2.1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표상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의미표상, 심층통사표상, 표층통사표상, 심층형태표상, 표층형태표상, 심층음운표상, 표층통사표상의 총 일곱 개의 표상이 소개될 것이며 2.2.2에서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주요 부분 *composante principale*이 다루어질 것이다. 3절은 어휘함수에 관한 것이며 4절에서는 환언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5절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 2.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인간의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의미 *sens*, 형태 *forme*, 대응관계 *correspondence* 라는 핵심적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의미는 심적 실체 *réalité psychique*로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내용을 가리킨다. 형태는 물리적 실체 *réalité physique*로서 청자의 감각기관을 통해 감지되는 음성 또는 문자 형태인 텍스트에 해당한다.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수와 발화할 수 있는 텍스트의 수가 무한하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의미와 텍스트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이한 개체들로 구성된 집합의 형태를 갖는다. 이 두 집합 사이에는 필연적이며 논리적인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언어활동에서는 의미는 텍스트에, 텍스트는 의미에 대응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개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유한수의 언어규칙이다. 이러한 개별 언어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모형이 바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텍스트라는 용어는 일반적이 아닌 기술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선 텍스트는 응집성 *cohésion*과 일관성 *cohérence*으로 정의되는 텍스트 문법의 그것이 아니라 표출되는 모든 언어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의미는 동일한 정보 내용을 갖는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동의성 *synonymi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이 의미는 환언관계에 있는 문장들이 갖는 불변의 의미에 해당하며

논리적 추론이나 백과사전적 지식의 도움 없이 언어 능력 *compétence langagière* 만으로 도출되는 순수한 언어적 의미 *sens langagier*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두 문장의 동의성은 언어능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 ㄱ. *Le peuple allemand luttait contre le fascisme*(독일인들은 파시즘에 맞서 싸웠다).

ㄴ. *Des Alpes à la Mer du Nord, du Rhin à l'Oder, le peuple continuait la lutte d'Edgar André*<sup>11)</sup>(알프스에서 북해까지, 라인강에서 오데르강까지, 사람들은 에드가 앙드레의 투쟁을 계속했다).

의미와 텍스트는 내적 구조를 가지며 메타언어 *métalangage*를 통해 기술될 수 있는 실체들이다.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의미표상 *représentation sémantique*과 음운표상 *représentation phonologique*이다. 즉,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의미와 텍스트 사이의 대응 관계는 의미표상과 음운표상의 대응 내에서 관찰된다. 엄격한 언어학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이 모형에서 메타언어에 의한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정밀한 분석을 위해 화학에서 원소기호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 2.1.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전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자연언어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전제하고 있다.

### (가) 다대다 대응 관계

보통의 발화상황에서 화자들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또한 하나의 문장은 중의적으로 사용되어 여러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미와 텍스트는 언어의 동의성과 중의성 *ambiguïté*

---

11) I. Mel'čuk *et al.*(1992) p. 11.

으로 인해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대다 대응 관계를 맺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qquad \qquad \qquad \text{언어(Langue)}$$

$$\{\text{의미표상}i\} \langle \text{-----} \rangle \{\text{음운표상}j\} \quad | \quad 0 < i, j \leq \infty$$

(나) 기능적 모형

이 모형은 입력과 출력만이 기술되고 그 내부구조, 즉 입력에서 출력이 생성되는 메카니즘은 관찰할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입력과 출력의 대응을 모사하는 *simuler* 규칙들의 체계로 구성되는 기능적 모형이며, 일종의 인공두뇌적 모형 *modèle cybernétique*이다. 이런 관점에서 심층구조에서 표층구조로의 이행되는 생성 메카니즘을 가정하는 변형생성문법과는 대조된다. 변형생성문법이 생성 과정을 표상하는 동태적인 규칙들을 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의미와 텍스트의 대응 관계만을 포착 가능하게 하는 정태적인 체계 *système statique*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의미·텍스트 모형은 한 언어의 어휘와 다른 언어의 어휘 사이의 대응관계를 보여주는 이개어 사전과 비교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다) 다층적 구조로서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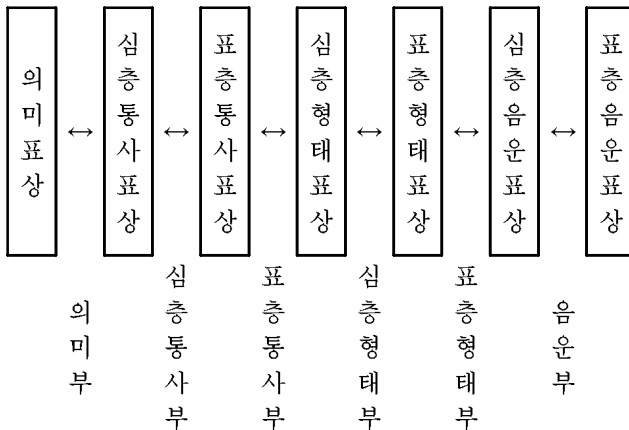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의미표상과 음운표상의 대응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어서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을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의미표상과 음운표상은 그 내적 구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의미표상은 의미성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망상 *réseau* 구조를 갖는다면 음성표상은 음성 또는 문자 형태들이 선적으로 전후 연결된 연쇄 *chaîne*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망상 구조와 연쇄 구조를 매개하는 중간단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통사표상 *représentation syntaxique*과 형태표상 *représentation morphologique*이다. 통사표상은 의미표상에 제시되는 의미성분들간의 지배 관계를 수형도 *arbre* 구조의 어휘 지배관계로 제시한다. 이를 다시 선적인 단어와 구의 구조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형태표상이

다. 또한 의미표상을 제외한 나머지 표상들은 의미를 지향하는 심층표상 *représentation profonde*과 텍스트를 지향하는 표층표상 *représentation de surface*의 두 부분으로 모두 분할된다.

이와 같이 모든 발화체는 일곱 단계의 표상으로 구성된다. 인접 표상들은 상호간에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맺으며 양방향 화살표가 의미하듯이(아래 그림 참고) 양방향 관계를 맺는다. 일곱 개의 표상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 고유한 메타언어와 메카니즘을 통해 이를 나타낸다. 이 점에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동일한 형식언어와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기저구조와 표층구조의 다른 의미정보를 약호화하는 변형생성문법과 구분된다.

인접 표상들간의 대응관계는 각기 여섯 개 주요부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전통언어학의 제 분야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인접 표상의 구성요소들을 대응시키는 규칙들로 구성된다. 이제까지 간략하게 설명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각 표상과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3)



지금까지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기본 전제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각 표상 단계와 주요부분에 대해 구체적으



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이론과 방법론을 검토하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어 어휘 기술 및 어휘부 구축이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도구가 될 수 있는 어휘함수와 환언체계를 연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표상과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 2.2.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구성

### 2.2.1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표상 단계

전술한 바와 같이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는 모든 발화 $\acute{e}$ nonc $\acute{e}$ 가 의미, 통사, 형태, 음운 단계로 표상된다. 이들 표상은 발화의 제 국면들에 해당하며, 개별 국면들이 갖는 구조는 상이한 메타언어에 의해 형식화된다. 메타언어는 그것이 기술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개별 표상들은 동일한 정보 내용, 즉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독자적인 메타언어와 구조를 필요로 한다.

심적 실체인 의미와 물리적 실체인 텍스트간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일련의 표상들은 전자가 후자에 대응되기 위해 부과되는 언어적 제약, 즉 문법적 제약을 구체화한다. 이 때, 각 표상들이 나타내는 정보적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n+1$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언어적 사실들은 이미  $n$  단계의 표상에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이 단계가 갖는 의미를 발화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적 제약의 구체화일 뿐이다.

개별 표상은 언어적 사실들을 표상하는 하위구조들의 집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단계가 갖는 성격에 따라 부과되는 국면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기술하는 하위구조의 수가 달라진다. 개별 표상을 구성하는 하위구조들 중의 하나가 주요구조이며 여타의 구조들은 주요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나타낸다.

#### (가) 의미표상 *représentation sémantique*

의미표상이란 발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즉 환언관계에 있는 여러 발화들이 갖는 불변의 동일한 의미를 표상하는 단계이다<sup>12)</sup>. 발화의 의미는 핵심 정보

12) 의미표상으로 표시되는 의미는 문장들 사이의 존재할 수 있는 동의성에 근거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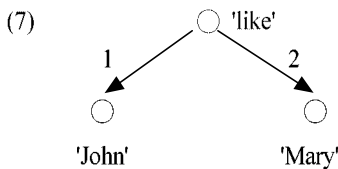
와 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정보로 이루어진다. 이를 반영하여 의미표상은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상황 의미sens situationnel를 표상하는 의미구조structure sémantique, 발화의 정보 구성 체계를 표상하는 의미-의사소통구조structure sémantico-communicative, 발화의 문체·수사적인 정보를 표상하는 의미-수사구조structure sémantico-rhétorique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붙여 문장 (4)의 의미표상은 (5)와 같이 표시된다.

(4) Le style des persécutions policières des gens de lettres en Union Soviétique a évidemment connu, depuis un demi-siècle, des changements sérieux.

(5) 부록의 의미표상 참고

의미구조는 마디noeud와 가지branche로 구성되는 의미망réseau sémantique의 형태로 제시된다. 마디에는 의미를 이루는 각 부분에 해당하는 의미소sémantème가 나타난다. 예문 (6)의 의미구조는 (7)과 같이 표상된다.

(6) John likes Mary.



의미소는 논항의 유무에 따라 함수자foncteur와 사물명nom d'objet로 나뉘며 함수자는 다시 술어prédicat, 수량사quantifieur, 논리적 연결사connecteur logique로 나뉜다.

---

이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이 다대다 대응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화자의 관점을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미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실현된다. 즉, 이 모형에서의 의미는 산출적 관점에서의 동의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8) 함수자

- ㄱ. 술어 : 관계, 속성, 행위, 상태, 사건 등을 나타내는 의미소
- ㄴ. 수량사 : ‘모든’, ‘있다’, 모든 수사<sup>13)</sup>
- ㄷ. 논리적 연결사 : ‘그리고’, ‘또는’, ‘만약’, ‘따라서’, ‘안’ 또는 ‘못’

(9) 사물명 : 모든 고유명사와 ‘해’, ‘달’ 등의 보통구상명사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소

(7)에서 볼 수 있듯이 예문 (6)의 함수자는 ‘like2’이며 ‘John’과 ‘Mary’는 사물명이다. 함수자 옆의 숫자는 함수자가 취하는 논항의 수를 나타낸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문장 (10)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함수자 ‘discover2’, ‘disappear1’, ‘belong to2’, ‘be the moment of’, ‘be before2’들이 필요하다. 이 경우, ‘Mary’와 ‘flask’는 사물명이다.

(10) Mary discovered the loss of her flask.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지는 함수자와 그 의미적 논항actant sémantique을 연결하며 그 관계를 표상하는 역할을 한다. 가지는 함수자에서만 출발하여 다른 함수자나 사물명에 도달한다. 가지의 수는 함수자에 의해 결정되고, 가지에 첨가된 숫자는 의미적 논항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 숫자는 의미적 논항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논항의 의미 역할과는 무관하다.

의미-의사소통구조는 정보내용의 제시 순서, 전제, 강조 등과 같은 정보의 구성 체계를 표상하고 의미-수사구조는 문체·수사적 특징들을 표상한다.

(나) 심층통사표상représentation syntaxique profonde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통사구조를 표상하는 단계로, 심층통사구조structure syntaxique profonde, 심층통사-의사소통구조structure syntaxico-communicative

---

13) 의미는 홀따옴표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예를들어 ‘먹다’는 먹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나타낸다.

profonde, 심층통사-조용구조structure syntaxico-anaphorique profonde, 심층통사-음조구조structure syntaxico-prosodique profonde로 구성된다. 문장 (4)의 심층통사표상은 (11)으로 표시된다.

#### (11) 부록의 심층통사표상 참고

이 표상 단계의 주요구조인 심층통사구조는 어휘들간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종속문법의 수형도 모형을 통해서 제시된다. 수형도의 마디는 편의상 자연언어의 어휘소lexème로 표시된다. 이 어휘소를 심층 어휘소lexème profond라 부르며 실제 자연언어 어휘소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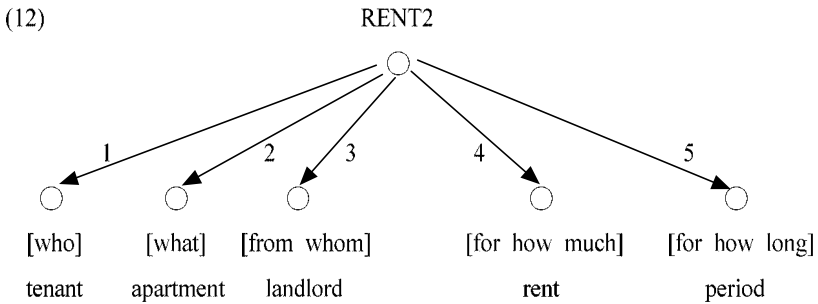
- ㄱ. 의미가 온전한 어휘소이다 : 전치사나 조사, 격변화어의 격표지, *that, que* 등의 보문 표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비어 있는 어휘소lexème vide는 심층통사구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 ㄴ. 가상 어휘소lexème fictif이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파생체계를 통해 가정할 수 있는 어휘소나 특수한 통사구조로 표현되는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 가정할 수 있는 어휘소이다. 불어의 경우 *compromis*로부터 파생체계를 통해 가정할 수 있는 어휘소인 \*COMPROMISER가 이에 해당한다.
- ㄷ. 숙어소phrasème일 수 있다 : *kick the bucket*이나 *casser sa pipe*, 꼴로 가다와 같이 여러 어휘 단위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는 숙어표현은 심층통사구조에서 하나의 어휘소로, 따라서 하나의 마디로 표상된다.
- ㄹ. 대명사 등의 조용소적 표현은 심층통사구조에 표상되지 않는다 : 조용관계는 심층통사-조용구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사적인 어휘소만이 나타나며 대명사, 관계사 등은 심층통사구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 ㅁ. 다른 어휘소에 의해 통사적으로 선택·결합되는 어휘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sup>14)</sup> : 어휘소들 간의 이와 같은 특수한 결합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어휘

14) 심층통사표상은 의미표상과의 관계에 의해 구축된다. 따라서 심층 어휘소는 의미 표상에 나타난 의미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의미표상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 다시 말해 의미적으로 선택되지 않고 통사적으로 선택되는 어휘소들은 심층 어휘소에

함수라는 개념이 사용된다<sup>15)</sup>.

가지는 마디들간의 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심층통사관계relation syntaxique profonde를 나타낸다. 심층통사관계는 지배어와 종속어가 맺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이항관계relation binaire로 표시된다.

1-6 : 함수자와 그 논항의 관계를 나타낸다. 동사-주어, 동사-목적어, 동사-보어 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변형구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RENT2 동사는 그의 논항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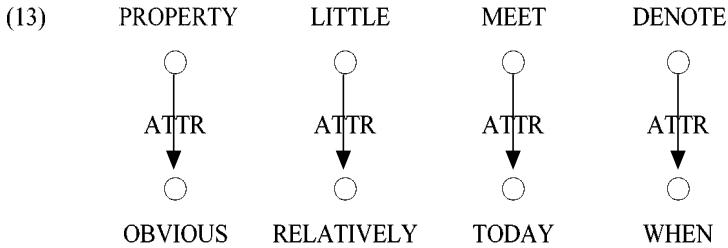


의미표상과는 달리 여기서 사용되는 심층통사관계 논항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동일한 의미 논항을 사용하는 통사구조의 부류를 지칭한다. 숫자 1은 함수자의 첫째 논항을 나타내는 문법적 주어와 그의 변형형태들을, 그리고 2-6은 함수자의 둘째에서 여섯째까지의 논항을 나타내는 목적어와 보어들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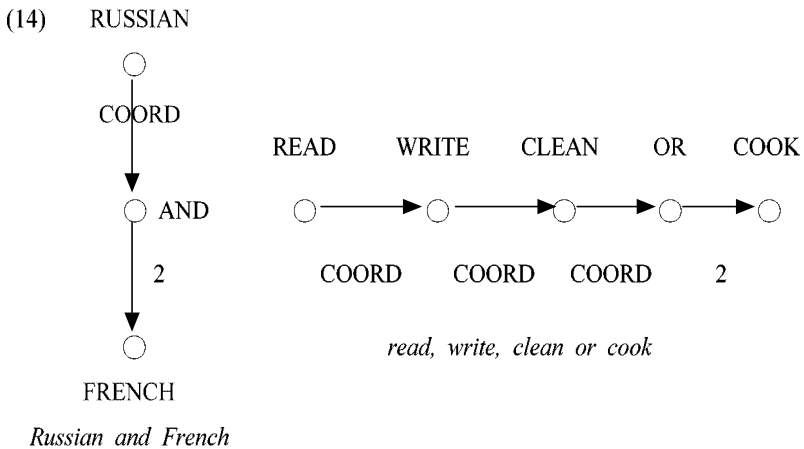
7 : 모든 종류의 수식어, 상황보어, 속사 등의 수식관계relation modificative를 나타내며 ATTR로 표시한다.

포함될 수 없다.

15) 어휘함수는 본고의 3절에서 개략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박진호(2000)을 참고할 것.



8 : 좌측 어휘소가 우측 어휘소의 통사적 지배어가 되는<sup>16)</sup> 모든 구문의 대등접속관계relation coordinative를 나타내며 COORD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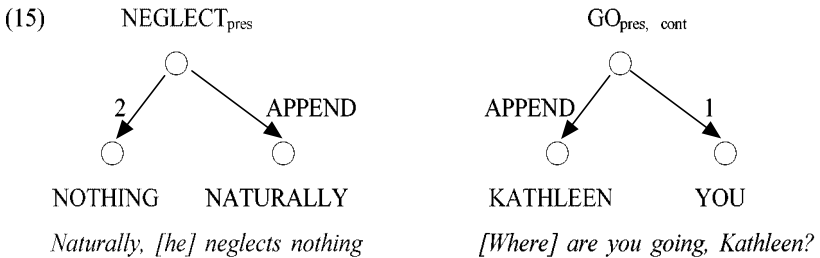


9 : 동격, 괄호 표현, 감탄구, 직접화법 등의 부가관계relation appentitive를 나타

16) 대등접속구문에서 좌측 요소를 지배어로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Mel'čuk 1988b, p. 27).

- ㄱ. X and Y에서 세 요소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되어 있지 않다.
- ㄴ. X and Y에서 and는 결코 지배어가 될 수 없다. 이는 X and Y의 통사적 분포가 and의 통사적 분포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ㄷ. X and Y의 통사적 분포는 X에 의해 결정되며 and Y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 ㄹ. and Y의 통사적 분포는 and에 의해 결정되며 Y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내며 APPEND로 표시한다.



심층통사-의사소통구조는 문장을 주제thème와 서술rhème로 구분하여 특화하며 심층통사-조용구조는 공지칭관계coréférentialité를 표시하고 심층통사-음조구조는 음조와 관련된 모든 의미를 표상한다.

(다) 표층통사표상représentation syntaxique de surface

문장의 표면 형태인 발화가 갖는 통사구조를 표상하며, 표층통사구조structure syntaxique de surface, 표층통사-의사소통구조structure syntaxico-communicative de surface, 표층통사-조용구조structure syntaxico-anaphorique de surface, 표층통사-음조구조structure syntaxico-prosodique de surface로 구성된다. 문장 (4)의 표층통사표상은 (16)으로 표상된다.

(16) 부록의 표층통사표상 참고

표층통사구조는 심층통사구조와 동일한 수형도 모형으로 제시되나 그 마디와 가지가 보여주는 어휘소들 간의 통사관계는 심층통사구조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표층통사구조에 나타나는 어휘소는 발화상의 실제 어휘들이며 따라서 심층통사표상의 마디에 나타나는 어휘소와는 구분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ㄱ. 대명사, 조동사, 접속사, 전치사 등과 같이 의미가 비어있는 어휘소를 포함

한다.

- ㄴ. 속어소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어휘소로 나뉘어 각각 하나의 마디를 구성한다.
- ㄷ. 어휘함수의 값이 산정되며, 함수 논항과 함수의 값이 각각 마디를 구성한다.
- ㄹ. 심층통사구조의 모든 가상 어휘소는 표층통사구조에서는 표층통사관계에 의해 표시되므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 ㅁ. 모든 대명사화pronominalisation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표층통사구조의 마디는 대명사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표층통사구조의 마디와 문장의 실제 단어형태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표층통사구조의 어휘소는 발화상에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표층통사구조상의 두 마디가 발화에서는 중합된 형태forme amalgamée<sup>17)</sup>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실제 어휘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표층통사구조의 가지는 기술 대상이 되는 언어의 표층통사관계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표층통사논항의 관계는 결합·설명 사전의 지배도식schéma de régime/government pattern에 제시된다<sup>18)</sup>.

#### (라) 심층형태표상représentation morphologique profonde

표층통사표상으로 실현되는 문장을 단어형태mot-forme와 구로 나누며, 구를 구성하는 단어형태들에 대해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문법소grammème<sup>19)</sup>를 구체화

17) 불어의 전치사 'à', 'de'와 관사의 예를 들 수 있다.

à + le(s) -> au(x)

de + le -> du, de + les -> des

18) I. Mel'čuk et al.(1984, 1988, 1992), I. Mel'čuk, A. Clas et A. Polguère(1995) 참조.

19) 문법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i) 의미적 문법소 : 명사의 수, 시제 등과 같이 이미 의미표상에 나타나는 것들로 어휘로 실현되지 않고 접사, 어미로 실현된다.

ii) 통사적 문법소 : 명사의 격, 형용사의 성·수 일치, 동사의 성·수 일치 등과 같이 통사적으로 결정된다.



하여 문장의 선적 배열을 표상하는 단계이다. 심층형태표상은 심층형태구조 *structure morphologique profonde*, 심층형태-음조구조 *structure morphologico-prosodique profonde*로 구성된다. 문장 (4)의 심층형태표상은 (17)과 같이 표상된다.

(17) 부록의 심층형태표상 참고

(마) 표층형태표상 *représentation morphologique de surface*

심층형태표상과 유사하나, 단어형태에 첨가된 문법소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여 그 내적 구성을 표상한다. 표층형태구조 *structure morphologique de surface*, 표층형태-음조구조 *structure morphologico-prosodique de surface*로 구성된다. 문장 (4)의 표층형태표상은 (18)과 같이 표상된다.

(18) 부록의 표층형태표상 참고

(바) 심층음운표상 *représentation phonologique profonde*

(사) 표층음운표상 *représentation phonologique de surface*

이 두 층위의 표상은 Mel'čuk의 논저들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어, 본고에서는 예시를 생략한다.

이제까지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을 구성하는 7개의 표상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인접 표상들을 대응시키는 6개 주요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2.2.2.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구성부

전술했듯이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는 모든 문장이 7 단계로 표상된다. 표상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 표상들은 상호 대응된다. 그러나 이들의 대응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들을 정밀하고 체

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장치가 의미부 *composante sémantique*, 심층통사부 *composante syntaxique profonde*, 표층통사부 *composante syntaxique de surface*, 심층형태부 *composante morphologique profonde*, 표층형태부 *composante morphologique de surface*, 심층음운부 *composante phonologique profonde*로 되어있는 6개의 주요 구성부이다.

개별 구성부는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일련의 연산 *opération*과 그 하위규칙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된다.

### (19) 'X $\Leftrightarrow$ Y | C'

X는 n단계의, Y는 n+1단계 표상의 구성요소들이며, C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다. 이 규칙들은 변형생성문법의 규칙과는 달리 동태적 *dynamique*이 아닌 정태적 *statique*인 성격을 지니며, X와 Y는 어떠한 변형의 과정도 겪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들이다.

#### (가) 의미부

8개의 조작과 그 하위규칙들을 통해 의미표상과 심층통사표상 사이의 대응관계를 구축하는 구성부이다. 8개의 조작은 다음과 같다.

1. 문장화 : 원래의 의미표상을 하위 의미표상들로 나누는 연산이다. 이 경우, 하위 의미표상들의 합이 원래의 의미표상이 되며 각각의 하위 의미표상은 의미의 크기에 따라 문장에 대응된다. 언어에 따라 문장의 길이나 문장 속에 담을 수 있는 의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위해서는 언어 고유의 그리고 문체에 따른 규칙들이 필요하다.
2. 어휘화 : 초기 의미망에 나타나는 의미단위들 *unité sémantique*을 묶는 의미 규칙 *règle sémantique*에 의해 심층어휘소 *lexème profond*를 선택하는 연산이다. 이 경우 의미단위의 묶음은 해당 언어의 어휘소 단위 *unité lexémique*에 의해 표현된다. 이 연산은 보편어휘소의 네 유형에 대응하는 네 개의 의미